

#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천만장 무상 공급한다

### 정부, 공적유통망 확대...압수마스크 40만장 우선 보급 ‘재난기본소득’ 수당 지급...음압병상·감염병병원 확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000만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국내 생산량을 하루 최대 1400만장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수당도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

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른바 ‘마스크 대란’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장 정도에서 1300만~1400만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000만장 무상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마스크의 중복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관련해 “2~3일 정도 지나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사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줄을 길게 선 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생산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생산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면 마

스크 생산을 한다든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공급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는 전쟁에 있어서 철모와 같은 것”이라며 “전쟁에 있어서 철모와 같은 것”이라며 “공적 유통망을 통해 장당 1천200~1천500원의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 40만장의 ‘긴급 판매’도 이번주 안에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매점매석하다 걸렸거나 압수당한 물품의 일정 부분을 우선 시중에 보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시중 유통에

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을 포함해 10조 원 이상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관련) 1단계 대책이 4조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원으로 이미 20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이 저소득 계층에 지급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홍 부총리는 공개했다. 그는 “전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에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1사단 군 차량 동원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 전역에서 일제 방역이 진행될 3일 오후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광주교회) 인근에서 육군 31보병사단의 제독차량이 교회 주변에 소독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31사단 장병 수십명은 터미널, 주요도로, 근린공원 등 광주 곳곳에서 방역을 지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세계 87곳 한국발 입국제한 루마니아·민주콩고 등 4곳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87곳이다. 전날 밤보다 4곳이 늘었다.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데는 36곳으로 변화가 없다. 몰디브는 서울과 경기도를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대구·경북·경남·부산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외국인만 막고 있다. 검역 강화와 격리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51곳이다. 전날 오후 10시에 조지아가 추가된 데 이어 이날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민주콩고 등 4곳이 추가됐다. 베네수엘라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하고 그 외 한국 지역에서 온 외국인인 14일 자가격리한다. 라이베리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 격리한다. 민주콩고는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해 정밀검사를 한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수시로 변경되는 입국절차를 출국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받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성금 모집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 성금모금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일반 국민의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어린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성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위생용품 공급, 의료진·봉사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기부를 원하는 독자께서는 아래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0년 3월 4일(수)~2020년 3월 31일(화)
- 모금 동참 방법
  - 개인성금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국민은행 054901-04-011876
  - 농협 790125-62-547117
  - 기업 및 법인성금 (예금주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 국민은행 054901-04-225621
- 휴대폰 문자 기부 : #0095(1천당 2000원)
- 온라인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www.relief.or.kr)
- ARS 기부 : 060-701-1004(한 통화 2000원)
- 성금 모금 안내 : 1544-9595

光州日報社 · 한국신문협회

### ‘초특급 방역’ 북한, NLL인근 해상까지 봉쇄

서해 접한 강령군 해상접촉 전면차단...“자연지리적 특성”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조선중앙TV에서 자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처음 밝힌 이후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정정지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자국 내 전염에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검찰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코로나19)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초특급 방역조치’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CNN “세계적 대유행 선언 가능성...경제 침체 타격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잘 이뤄지는 호흡기 계통의 병원체는 예전에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면 이 같은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론에는 선을 그었다. CNN은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중부의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남극대를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번졌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3천115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WHO가 아직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준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준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빙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NATIONAL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도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 2020년 3월 19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 ~ 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